

목어 부끄러운 불교인

그날은 청계산 등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주차장 출구로 향하던 때였다. 출입구에서 관리인들과 어느 운전자가 실랑이를 하고 있었다. 그 운전자가 끄는 차는 신형 그래픽에 왕방울 염주를 보기 좋게 걸고 있었다. 운전석 위 백미러에.

결국 그 사람은 관리인들의 저지로 주차장에 들어오지 못하고 돌아갔다. 출구를 나오기 전에 관리인에게 사연을 물어 보았다. 호기심이 반 정도였고, 어느 높은 사람이 와서 호통을 치며 싸운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출입을 위해 줄 서 있는 많은 차들을 무시하고 새끼기로 입장하려던 차였다. 관리인들이 제지하자 감히 누굴 제지하느냐고 호통도 치고 욕설도 서슴지 않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던 것이다. 주차관리인들에게 잘했다고 격려를 해주고 나왔다.

그러나 화끈거리는 얼굴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랜저 백미러에 걸려있던 왕방울 염주가 눈에 선했기 때문이다. 생각하건대, 어느 졸부가 와서 주차관리인들을 아랫것들이라 생각하고, 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많은 등산객들을 무시하고 새끼 주차장 시도했으리라.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좋은 고급 차를 몰고 다니고, 특히 염주를 보이하니 부처님의 복을 제법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보였지만 절에서는 신중팔구 기복 이외에는 배운 것이 없었을 것이다. 불자임을 표시하는 큰 염주를 달고 다니고 해도, 그렇게 후안무치한 행동을 한다면 결코 제대로 된 불자라고 할 수 없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의식을 성숙시키고 사회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교정시키는 것이 사찰과 불교도의 사명이라. 만일 나에게 배운 불교도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복과 혼백을 파는 것도 필요하지만 건전하고 당당한 불제자를 키우는 불교가 되어야 한다.

그날 주차장에서 일은 나에게 부끄러운 부처님의 제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타산지석이 되었다.

차차석(동국대 역경위원·본지 논설위원)

불자 세상보기

녹색연합이 최근 발표한 한국 환경 질 10년 변화에 관한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환경질이 더욱 나빠져 국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

를 보이는 직색신호는 도시화율, 폐암 사망률 등 13개 지표, 긍정적이기도 부정적이기도 않은 노랑신호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 6개 지표로 나타났다.

그러한 구체적인 사례가 지금 불교계 최대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북한산 관동도로 건설문제와 경부고속철도의 금정산·천성산 통과 문제이다. 이 두 문제는 몇가지 면에서 공통적인



이병인
밀양대 교수
환경공학과

청정국토 유지 불교가 앞장서야

이같은 조사결과에 정부의 정책결정에서 늘 경제와 정치적인 논리가 환경보다 우선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결국에는 국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평가된다. 아직도 지속가능한 개발이 구호로만 그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개발계획의 수립시에는 지속가능한 개발이나 환경친화적 개발을 목표로 원칙

특성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는 두 문제 모두 불교계가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21세기 한국불교계의 최대 불교환경문제로서 대두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마지막 자연의 보고인 산을 관통하고 파괴하는 공사라는 점이다. 1600여년간 한국불교가 지켜온 산과 절은 이제 사찰의 신문에 쓰인 것처럼 하나가 되어 산을 지켜 왔다. 그

러기에 개발로 인한 산의 파괴는 단순한 산의 파괴만의 문제가 아니라 불교계의 근간을 파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때문에 이번의 문제들을 반대하는 것은 단순한 개발사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마지막 자연유산 산을 지키는 일이고, 불교라는 종교의 명맥을 되살리는 일이다. 그동안 불교가 지키고 가꿔온 우리의 유산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 국립공

원 등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고, 국보·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기대만큼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가에서 국립공원지역 또는 문화재보호구역 등으로 지정해 놓고, 이를 파괴하는 개발행위를 정부차원에서 주도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지금의 환경은 불교계의 자발적인 참여와 주도가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도 다람살라 탐방기 ①

동국대 정각원장 법산스님은 7월 25일~8월 2일, 8박 9일 간의 일정으로 인도 다람살라를 다녀왔다. 스님은 달라이 라마와 잠틀 린포체, 요기 독뎌 얀틴 등을 만나 법담을 나눴으며, 왕궁 사찰, 도서관, 티베트 난민수용소 등을 방문했다. 스님의 다람살라 탐방기를 2회에 걸쳐 실는다.

“빈전잠초 따시달레(달라이 라마 안녕하세요)”

7월 29일 오후 2시, 세계의 지붕 히말라야산맥의 기슭에 위치한 인도 다람살라 왕궁 사찰. 정확한 시간에 맞춰 나온 달라이 라마는 처음 만났지만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도반(道伴)처럼 친근하게 느껴졌다.

문체계를 확립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마음 속 깊이 잠재해 있는 집착과 분별 등 번뇌망상을 토론과 분석과 깊은 사유를 통하여 완전히 비워버려야 된다는 것이다. 또한 비나야(戒律)를 항상 마음에 굳게 새겨 몸소 실천 수행함으로써 깨달음의 경지를 체득해야 된다는 것이다.

현재 다람살라의 티베트 불교수도



법산스님이 7월29일 다람살라 티베트명정부 왕궁사찰 정전실에서 달라이 라마(왼쪽)와 법담을 나누고 있다.

“끝없는 思惟·수행통해 성불에 이르는게 불교”

첫 대면 달라이라마와 진지한 대화

“학문·수행엔 논장이 더 중요 한국방문하게 되면 기증할것”

그리고 “불교는 신심만으로 되는 종교가 아니라 부처님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고 분석 사유하며 자신의 번뇌 망상을 뽑아내는 수행을 통하여 성불에 이르는 종교”라며 교학체제와 수행체제를 통해 마음이 완전한 비나(戒律), 즉 공(空)의 상태를 체득하여 깨달음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했다.

무엇 부처님을 믿는 독특한 신앙이 물론 중요하지만, 동시에 반야사상을 철저히 공부하여 부처님의 근본이념을 체득하고 용수의 중관사상으로 이

원에서는 반야부 경전을 7년, 중관사상을 3년, 비나야를 2년 공부하여 도합 12년 과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제도는 완전한 이론과 수행을 함께 실천하는 철저한 교육에서 인도철학을 하고 대학원 석·박사과정에서 용수의 중론(中論)을 연구하였기에 중관사상에 관한 토론을 많이 나누었다.

달라이 라마는 현세를 사는 사람 중 세계 각국의 권력자와 지식인을 가장

의 전생인 21번째 모습이었다. 신기하게도 많이 남아 보였다. 링 린포체는 한국과 많은 인연을 갖고 있다. 7살 때 한국에 방문해 서울 구룡사에 머물면서 여러 곳을 참관하였고, 지난 봄에도 일산 여래사에 머물며 동국대를 방문해 정각원에서 법회를 열기도 했다. 지금은 남인도 수행처에 머물고 있어 만날 수 없었지만, 직접 전생의 모습을 보니 감회가 새롭고 환생이 사뭇 신기하게 느껴졌다.

달라이 라마의 편안하면서 생동감 넘치는 그 모습은 정말 관세음보살의 화현을 대하는 것 같은 자비가 넘치는 분위기가 났다. 친견하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학문과 수행에 전념해 온 필자의 입장으로는 참으로 거룩한 만남이었다. 하지만 명명정부의 왕궁사찰 계단을 내려오는 필자의 발은 왜 그리 무거웠는지...

법산(동국대 정각원장)

불자의 생각

원찰

대부분의 불자들은 신도등록을 하고 정기적으로 법회에 나가는 원찰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5명이 동참한 붓다

“신도등록·법회 정기적 참여” 71.1%

뉴스 네티즌 설문조사에서 32명(71.1%)이 이같이 응답했다. 그러나 13명(28.9%)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원찰이 있다면 몇 곳인가 라는 질문에는 21명(56.8%)이 1곳, 14명(37.8%)이 2곳, 2명(5.4%)이 4곳 이상이라고 답변해 대부분의 네티즌 불자들이 평균 1곳 정도의 원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석 기자

원·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형준비에 지친 수행승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을 최가적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황학하음은 스님
오늘도 養生 求道와 佛功으로 修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藥膳으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고향 기회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정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隨處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 (02) 713-7798, 701-4716

- 별도상당(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외상당(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정밀분석 51160-150

심마당 長腦 山蔘

자랑스러운 우리 태극전사들이 먹은 수신토종오가피

전 세계가 놀란 우리 선수들의 지킴줄 모르는 체력!

선진축구의 파워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탐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 수신토종오가피가 함께 했습니다.

저희의 작은 정성이 우리 선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꼭 확인하십시오!

우리 선수들이 먹는다며 선전하는 오가피제품들이 있습니다. 우리 축구국가대표팀이 먹은 오가피는 ‘수신토종오가피’입니다.

사진 확인하셨습니까?

수신토종오가피는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 성광수씨가 재배한 100% 토종오가피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입니다. 품질에 대한 자부심으로 한봉지 한봉지마다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 성광수씨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이 없다면 축구국가대표선수들이 먹은 수신토종오가피가 아닙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중관산도 북한산도 아닙니다.

최근 중관산오가피를 북한산이나 국내산으로 표기하여 적발된 업체들이 물의를 일으킨바 있습니다.

수신토종오가피는 중관산도 북한산도 아닙니다. 오직 국내에서 재배한 국산토종오가피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접 오셔서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국내최대재배자 성광수씨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직접 농장견학회를 열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02) 454-3733